



주간통일정세 2009-01(2008.12.29~2009.01.04)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09-01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 김정일, 새해 첫 공개활동…군부대 시찰(1/3,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올해 첫 공개활동으로 북한군 ‘근위서울 류경수 제105탱크사단’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
- 통신은 3일 오전 2시 김 위원장의 시찰 날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채 “새해에 즈음하여”라고만 소개했지만, 뒤늦게 나온 조선중앙TV와 중앙방송이 “사단의 전체 장병들은 새해의 첫 아침에 친히 부대에 찾아오신 장군님(김정일)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고 보도해 지난 1일 시찰이 이뤄졌음을 시사
-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통신이 내보낸 김 위원장의 시찰 사진 중 두툽한 장갑을 낀 왼손을 책상에 올려놓은 모습이 있으나 여전히 동적인 면을 찾아보기 어려웠음.
- 특히 이번에 시찰한 ‘근위서울 류경수 제105탱크사단’은 북한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정치가 시작된 본산으로 선전되고 있음. 김 위원장의 이번 시찰에는 현철해, 김명국, 리명수 군 대장 등이 수행

##### ● 北, 김정일에 각국 지도자 연하장 보내(1/1, 조선중앙통신)

- 2009년 새해를 맞아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각국 지도자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앞으로 연하장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
-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에게 연하장을 보낸 주요 지도자는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시진핑(習近平) 부주석,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 및 라울 카스트로 현 국가평의회 의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베트남의 농 득 마잉 공산당 서기장, 춤말리 사야손 라오스 국가주석,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 압델아지즈 부테플리카 알제리 대통령 등임.
- 이밖에 중국의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자루이(王家瑞) 당 대외연락부장, 러시아 연방의회(상원) 세르게이 미르노프 의장, 렌나트 바게 유엔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총재, 마쓰우라 고이치로 유네스코(UNESCO) 사무총장 등도 연하장을 보냈다고 통신은 보도
-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도 김 위원장에게 새해 축전을 보냈다고 평양방송은 전언



● **김정일, 12월 현지지도 특별열차 이용한 듯(12/30, 연합뉴스)**

- 정보당국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별열차가 12월 들어 자주 이동하고 있으며 이달에 집중된 현지지도(시찰) 때 이 열차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소식통은 “북한 언론 보도나 특별열차 이동 횟수 등을 고려하면 이번 달 김정일 위원장은 대부분 특별열차를 이용해 현지지도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고 언급, 김 위원장은 12월에만 군부대를 두 차례 방문하는 등 모두 13회에 걸쳐 공개활동에 나선 것으로 북한 언론은 전하고 있으나 정보당국은 김 위원장의 군부대 시찰이 한 차례 더 있다고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짐.

● **김정일, 국립교향악단 공연 관람(12/2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립교향악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 그러나 통신은 김 위원장의 공연 관람 날짜는 밝히지 않음.
- 김 위원장의 공연 관람 보도는 28일 ‘헌법절’(12.27)에 즈음해 ‘오중흡 7연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323군부대 지휘부를 방문하고, 공군 제1017군부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한 데 이어 이틀 연속 나온 것임.
- 김 위원장은 “주체교향악은 오늘 선군시대에 최전성기를 수놓으며 비약적인 발전의 길을 걷고 있다”면서 “교향악을 우리 인민의 비위와 감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 분투한 국립교향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통신은 보도
- 김 위원장과 함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장성택·김양건과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들인 리용철·리제강·김경옥·리제일,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 차승수를 비롯한 책임간부들과 현철해·리명수 북한군 대장이 공연을 관람

나. 정치 관련

● **北, 10·4선언 떠나 북남관계 개선없다(1/3, 노동신문; 평양방송)**

- 노동신문은 3일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는 제목의 논설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떠나 북남관계 개선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
- 신문은 신년 공동사설의 남북관계 부분을 해설하면서 “새해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는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에서 탈선하는 그 어떤 요소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평양방송이 전언
- 신문은 이어 “우리민족끼리”를 거듭 강조하고 “해내외의 정당·단체들과 각계층 동포들이 민족적 화해와 협력을 위해 서로 지지하고 보조를





- **군이 당·수령에 충성심 가장 강해(12/31,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선군후로의 원칙’이라는 글에서 “선군후로(先軍後勞)의 원칙은 혁명 위업 수행에서 군대를 주력군으로 내세운다는 것”이라며 이는 “군대는 사회의 그 어느 집단보다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하며 조직성과 규율성, 단력에서도 가장 강하”기 때문이라고 31일 주장
- **北, 한·미, 올해 2천200여회 공중정탐(12/30, 조선중앙통신)**
  - 국군과 미군이 올해 모두 2천200여 차례 북한에 대한 ‘공중정탐’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주장, 통신은 ‘군사 소식통’을 인용, 이 같이 말하고 이는 북한에 대한 한·미군의 “침략전쟁 준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
- **北, 국회의장·한나라당 비난(12/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0일 ‘강토를 전쟁터로 만들 썸인가’라는 제목의 개인 논평에서 최근 김형오 국회의장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3명이 경기도 연천의 전방 부대를 위문한 것에 대해 “군사적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는 행위라고 비난
  - 신문은 한나라당에 대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가로막았다는 등으로 비난하면서 “오늘의 파국적인 남북관계를 놓고 볼 때 한나라당의 집권으로 6·15통일시대의 성과들이 다 날아가고 북남 사이의 대결이 격화되며 종당에는 전쟁밖에 터질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
- **北, 김정일 ‘건강 기원’ 장시 게재(12/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2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을 기원하는 장시를 게재, 문용철과 한광춘이라는 시인이 공동으로 쓴 ‘그이는 오늘도 행군 길에 계신다’라는 제목의 장시는 “한 해는 다 저물어가도/ 그 해와 달에 엮고산/ 장군님 건강을 바라는 우리의 소원/ 인민의 간절한 소원은 가슴에 그냥 남아/ 더더욱 그리운 어버이 장군님”이라며 김 위원장의 건강을 기원

#### 다. 경제 관련

- **北경공업성, 올해 ‘입는 문제’ 우선 해결(1/4, 조선신보)**
  - 북한 경공업성은 올해 생활필수품 가운데서도 ‘입는 문제’ 해결에 우선 주력할 방침이라고 조정웅 부상이 언급, 조 부상은 4일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현재 가장 중시하는 것은 방직부문”이라며 “인민들의 식의주 문제를 풀어간다는 입장에서 우리는 생활필수품의 생산에서도 먼저 입는 문제와 관련된 것부터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고 언급
  - 그는 2006년부터 평양방직공장의 개보수를 중요 과제로 추진해 지난



해 종래의 방직설비를 전면 갱신, 제품의 질을 높이고 생산능력을 “몇 십배로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주장하면서 경공업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는 북한에 있는 것은 “적극 동원·이용”하고 “없거나 모자란 것은 무역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

● **나진에 태양열 온실 시범 건설(1/2, 미국의소리방송)**

- 국제기술지원(EMI)이라는 국제 개발자원봉사 단체가 2008년 함경북도 나진에 전력을 사용하지 않는 태양열 온실을 건설, 약 50명의 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감자와 가지, 토마토, 오이, 배추 등 다양한 채소를 연중 재배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일 보도
- 이 온실은 전기 사정이 어려운 북한의 현실을 고려해 전력이 필요없고 겨울에도 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나진의 한 마을에 시범적으로 만들어짐.

● **北, 새해 첫날부터 경제 ‘대고조’ 부각(1/2,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2008년 연말 경제분야에서 50년대의 천리마운동을 상기하며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한 대중선동을 시작한 가운데, 새해 첫날 북한의 주요 기업소와 발전소 등에서 대규모 발파와 증산 투쟁이 벌어졌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일 보도
- 방송은 북한 최초의 화력발전소인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와 황해북도 곡창지인 미루벌 관개수로, 북한 최대의 철광산인 함경북도 무산광산연합기업소 등에서 “강선 노동계급의 전투적 호소가 담긴 편지와 당보, 군보, 청년보의 새해 공동사설을 받아”안아 생산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

● **北김정일, 2012년 목표 ‘경제 전면전’ 준비(1/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작년 12월 평안남도 남포시 소재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현지지도에 대해 미국의 정권교체 등 대외 정세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경제부흥의 전환 국면”을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
- 조선신보는 2008년의 마지막 달 “최고영도자(김정일)의 현지지도를 중대 계기점으로 하여 경제부흥의 전환 국면이 열리게 된 것”이라며 이 “결단은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과 평가, 자기 나라의 이해와 역량의 타산 등에 기초해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
- 국제정세에 대해 신문은 “작년 6자합의 이행 등에서 일련의 진전이 있었고, 미국은 조선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에 변화의 징조가 나타나고 미국에서는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고 지적, 또 “천리마(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 대한 현지지도는 2009년부터 시작되는 격동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고 신문은 강조
- 신문은 김정일 위원장이 “2012년을 향한 전민 대진군의 진두에서 새



로운 공세와 대담한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선군노선에 의해 다져진 정치군사적 위력에 의거해 경제와 인민생활을 높은 수준에 올려세움으로써 김일성의 100회 생일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것”이라고 강조

- 신문은 김 위원장의 제강소 시찰 직후 북한에서 “대중적 운동을 호소하는 대내적인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며 “2012년을 향한 조선의 대내외 정책은 현상 유지를 배격하고 변혁을 요구하는 진보성, 자기 힘에 의거해 더 높이 더 빨리 목표를 달성하려는 적극성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줄기차게 전개돼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

### ● 北 새 경제동원구호, ‘강선의 봉화’ 등장(12/30, 연합)

-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평안남도 남포시) 시찰을 계기로 새로운 경제 구호인 ‘강선의 봉화’를 제시, 주민동원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12월 24일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시찰, 2012년까지 ‘강성대국’ 달성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천리마의 고향인 강선(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의 옛 이름)” 노동자들이 여기에서 ‘선봉’에 설 것을 주문했었음.
- 노동신문은 30일 ‘강선의 본때로 용감무쌍하게 앞으로’라는 제목의 장문의 ‘정론’에서 “천리마의 고향 강선에서 위대한 불길이 타올랐다”며 처음으로 ‘강선의 봉화’를 언급, 이 신문은 천리마제강 종업원들이 28일 쫓겨모임을 열어 북한 전역의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채택한 것에 화답하는 형식의 정론에서 “위대한 장군님 몸소 지펴주신 강선의 봉화는 혼연일체의 봉화”라며 김 위원장과 주민간 ‘혼연일체’를 강조했다.

## 라. 사회·문화 관련

### ● 북한은 역시… 달려마다 김정일 가족사 표기(12/2, 문화일보)

- 조선화보사 발행 2009년 북한 달려에는 매월 김 전 주석 가족사의 연표가 주요 사항으로 빼곡하게 기록돼 있다고 문화일보는 보도

### ● 왕건 어진 봉안 만월대 경령전 구조 확인(1/2, 연합)

- 개성의 고려궁성 ‘만월대’ 구역 중에서도 태조 왕건을 비롯한 역대 고려왕 5명의 어진(초상화)과 신위를 봉안하던 공간인 경령전(景靈殿)과 그 주변 일대 건축물의 정확한 규모와 배치 상태가 확인됐음.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남북역사학자협의회(위원장 서중석)와 함께 2008년 11월4-12월23일 만월대에 대한 제3차 남북 공동발굴조사를 벌인 결과, 1차 시굴조사에서 일부 확인한 경령전이 동서 22.67m, 남북 10.15m인 장방형 기단에 정면 5칸, 측면 3칸 건물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2일 밝힘. 북한측에서는 조선중앙역사박물관





- 준공식에는 리태남 평안남도 당 책임비서와 평성열사릉에 안장된 인  
사들의 유가족들이 참석
- \* 북한에는 대성산 혁명열사릉과 신미리 애국열사릉 등 2개의 국립  
묘지가 있으며 이들 묘지에는 항일투쟁 참가자들과 북한 정권을  
위해 ‘공로’를 세운 인사들이 안장되어 있음.

● **北, 문학의 임무는 김일성 부자 위대성 선전(12/13, 문학신문)**

- 북한은 최근 평양에서 올해 문학작품 창작 실적을 결산하는 ‘문예사상  
연구모임’을 열어 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대성’과  
‘선군시대’의 현실을 그린 작품이 많이 창작된 것을 성과로 꼽고,  
2012년으로 설정한 ‘강성대국’ 달성에 전체 주민이 매진하도록 독려  
하는 “혁명적 문학작품” 창작에 주력할 것을 촉구
-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문학신문 12월 13일자에 따르면,  
이 모임에서는 안동춘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장을 비롯해 강선규  
4.15문학창작단 작가, 백의선 현승남 작가동맹 부위원장, 박찬수 작  
가동맹 아동문학분과위원장, 박영 문학예술출판사 부사장 등이 보고  
와 토론을 진행
- 이들은 올해 북한 문학계가 거둔 가장 큰 성과로 “‘백두산 3대장군  
(김일성, 김정일, 김 위원장의 생모 김정숙)’의 위대성을 형상한 문학  
작품”을 대거 창작해 북한 문학의 성격을 뚜렷이 한 것을 꼽았음.
- 그 대표작들로는 김 위원장이 1998년 3월 성진제강연합기업소(성  
강)를 시찰하면서 경제선동 슬로건인 ‘성강의 봉화’를 제시한 것을  
그린 장편소설 ‘불’과 함경남도의 ‘대자연 개조’를 내용으로 한 장편  
소설 ‘봄의 서곡’ 등이 거론되었음. 이들은 김일성 주석을 칭송하는  
문학작품을 일컫는 ‘수령형상 문학’의 대표작으로는 단편소설인 ‘열  
다섯 번째 해’, ‘우리 수령님’, ‘봄 소나기’, ‘믿음의 세계’, ‘움트는 아  
침’ 등을 내세움.
- 소설 뿐 아니라 서사시 ‘강계의 눈보라 이야기하라’, ‘우리 조선 길이  
반들리’와 장시 ‘해돋이’, 시초 ‘우리의 아버지, 행복한 우리집’, 시뭇음  
‘2월의 전선길’, 답시 ‘흙에 대한 답시’ 등도 김일성 부자에 대한 이상화  
면에서 우수작으로 꼽았음.
- 아동문학 부문에서 서사시 ‘영원히 빛나라 우리의 새날이여’, 단편소설  
‘올기강의 아침’, ‘해님의 딸’ 등을 수준 높은 작품으로 선정
- 또 김 위원장이 통치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를 일컫는 ‘선군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작품이 대거 창작됐다고 소설부문 대표작으로 장편  
‘조옥희’, ‘달라진 선택’, ‘인생의 악보’를, 단편 ‘적동색 머리수건’, ‘숲  
에 깃든 낮’을 거론되었음.

● **北, 살림집 건설 ‘붐’(12/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최근 평양을 비롯해 각 지역에서 일체식 및 조립식 공법의  
‘살림집(주택)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 통신은 “평양시 만수대거리를 비롯해 수도의 여러 곳에서 살림집 건설이 한창”이며 “각 도, 시, 군들에서도 지방의 특성을 살린 살림집들을 건설” 중이라고 보도

- 통신은 “평양시 건설지도국에서는 만수대거리에 수도의 다른 중심 거리들과 조형예술적으로 잘 어울리는 여러가지 형식의 살림집들을 일떠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체식 공법과 조립식 공법을 받아들여 살림집 골재공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고 소개
- 통신은 올해 “평양시 형제산구역, 순안구역을 비롯한 여러 시, 군, 구역들에 건축학적 특성을 잘 살린 많은 살림집들이 건설”됐으며, 황해남도 재령군 래림리, 신원군 신창리 등 농촌지역들도 살림집을 새로 짓거나 개건보수했다고 소개

## 2. 대외정세

### 가. 북·미 관계

#### ● 北신문, 美에 핵전파 책임(12/2,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2일 “편견적인 태도는 핵문제를 더욱 북 ‘미국의 핵 이중 기준 정책이 문제이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이 이중적 기준을 갖고 각국의 핵 문제를 다룬다며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
- 신문은 이날 최근 미 의회의 한 위원회가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이 폭발적 핵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한 “반면 미국은 요즘 중동의 일부 나라들과 핵협정 체결을 시도”하고 있어 “미국의 핵연료와 기술, 지식이 조만간 이 나라들에 제공될 것”이라고 주장

### 나. 북·중 관계

#### ● 北김정일-中후진타오 ‘친선의 해’ 다짐(1/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1일 새해 축전 교환을 통해 올해 성공적인 ‘북·중친선의 해’를 다짐
- 후 주석은 1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나는 이 기회에 당신과 함께 ‘중조 친선의 해’가 정식 시작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이에 대해 열렬히 축하한다”며 “올해는 중조 두 나라 사이의 외교관계 설정 60돌이 되는 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후 주석은 이어 “중·조친선의 해’는 두 나라 관계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상징”이라며 “중국측은 조선측과 함께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친선을 증진시키고 교류를 촉진하며 협조를 심화시켜 중·조 친선협조 관계의 보다 아름다운 내일을 공동으로 개척해 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하고 “중·조 친선의 해’의 원만한 성공을 축원한다”고 덧붙였다.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백악관 “6자회담, 부시의 대표적 외교성과”(1/4)

- 오는 20일 퇴임을 앞둔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는 지난 8년간 100대 업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외교적 성과로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 폐기 약속을 받아낸 것을 꼽았음. 또 부시 행정부는 한국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 기존에 3개에 불과했던 FTA를 14개로 늘린 것도 100대 업적 중 하나로 제시했음.
- 백악관이 3일 부시 대통령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미국인들이 모를 수 있는 부시 행정부(2001~2009)의 100가지 기록’이라는 자료에서 이 같이 주장했음.
- 자료는 외교안보분야의 ‘첨단 미사일방어, 확산방지 노력, 대량살상 무기(WMD) 위협 방지’ 장에서 다자협의체인 북핵 6자회담을 발족시켜 북한으로부터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을 제일 먼저 꼽았음.
- 특히 자료는 미국과 적대관계를 유지해온 리비아가 영국의 중재로 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공개 및 해체하고 테러를 비난하고 나선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북핵 6자회담의 성과를 내세웠음.
- 경제분야와 관련, 자료는 “부시 대통령은 고립주의에 맞서고, 수출시장을 열고, 미국의 농부와 노동자, 기업인들에게 기회를 증대시켰다”면서 한국 등과 FTA를 새로이 체결해 당초 3개였던 FTA 체결국을 14개로 늘렸다고 밝혔음.
- 이밖에 자료는 부시 행정부의 주요 업적으로 ▲9.11 이후 추가 테러 방지 ▲이라크·아프간 독재정권으로부터 5천만명 해방 및 민주주의 확산 ▲전세계적 AIDS, 말라리아 구제사업 전개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동맹 강화 등을 꼽았음.

##### ● 美 “北, 핵검증 먼저 허용해야”(1/3)

- 미 백악관은 2일 북핵 6자회담과 관련, 북한이 핵프로그램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허용하는 조치를 허용하면 미국을 비롯해 나머지 5개국은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며 북한측에 검증의정서 합의를 거듭 촉구했음.
- 고든 존드로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기대하는 북핵문제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검증 가능하게 비핵화된 북한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존드로 부대변인은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이 모두 합의한 합의문에서 규정한 조치들이 있으며, 우리는 북한이 그 의무에 부합하기를 기대한다”면서 “6자회담은 행동대 행동 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훌륭한 검증절차가 이행되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면 나머지 5개국들도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음.
- 또 그는 “6자회담이 지금까지 잘 진행돼 왔다”면서 “최근에 북한만이 그들의 약속을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북한이 제 궤도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나. 미·북 관계

##### ● ‘8.18사건’ 후 美, UN외교전서 北에 고전(1/3)

- 지난 1976년 8월 18일 북한군의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후 미국은 유엔을 무대로 한 국제외교전에서는 북한의 만행을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한 채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등 역공세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그해 9월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문제가 아예 논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재외공관을 통해 각 주재국에 미국의 입장과 북한측 주장의 문제점을 적극 알리도록 하는 등 ‘수세적 외교’를 펼쳤던 것으로 나타났음.
- 미국은 당시 8.18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전투기와 항공모함을 동원, 북한에 대한 응징보복을 시사하며 한반도 주변에서 무력시위를 벌여 북한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유감 성명’을 전달받는 등 외형적으로 승리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엔을 무대로 한 2라운드 외교전에선 북한의 선전공세에 밀려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소 놀라움을 주고 있음.
- 이 같은 사실은 브렌트 스카우크로프트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1976년 8월 30일 백악관에서 윌리엄 스크랜튼 유엔주재 미국 대사,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과 면담한 내용을 적은 메모 등 미 국무부가 2008년 12월 31일자로 비밀분류를 해제한 외교문서에서 드러났음.
- 메모에 따르면 북한은 8.18사건 직후인 8월 20일 비동맹국가들의 지지 아래 한반도에서 외국군대의 개입과 침공을 종식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했고 이에 맞서 한국과 미국 등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북대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음. 스카우크로프트 보좌관은 메모에서 북한 결의안에는 31개국이 지지를 표한 반면에 한국과 미국이 낸 결의안 지지서명국은 19개에 불과했다고 밝혀 양측이 제기한 결의안에 대한 세대결에서 한국과 미국측 결의안이 열세를 보이고 있음을 인정했음.
- 메모는 이어 “우리측에 우호적인 결의안에 대한 추가서명자를 확보하고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지지핵심그룹’을 형성했다”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입장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최근 콜롬보 비동맹정상회의에서 광범위한 외교활동을 벌였다”며 양측의 외교전을 소개했음. 그러면서 메모는 “미군 장교 살해 및 이후 북한의 상대적인 유화노선 등 DMZ(비무장지대)에서 드러난 북한의 행동은 아마도 미군의 존재를 공격적이고,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는 세력으로 성격 지우려는 북한의 전략을 반영한 것 같다”고 지적했음.

- 또 메모는 “이번 유엔 총회 회기 우리의 전술적 목표는 유엔 총회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모든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를 연기토록 촉구하는 것”이라고 적어 도끼만행사건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유엔 외교무대에서 한반도 문제 논의를 피하는 등 오히려 수세적 입장이었음을 드러냈음.
- 국무부는 그해 9월 6일 전 해외공관에 보낸 훈령에 따르면 국무부는 각 주재국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적극 설명할 것을 지시하고 ‘토킹 포인트(Talking Point)’까지 제시했음. 훈령은 “미국과, 한국의 우방들은 유엔 총회에서 무익한 충돌을 피하기를 선호하지만 일방적·친북한적 결의안의 도전에 맞설 것을 강요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 ● “北 나진에 태양열 온실 시범 건설”<VOA>(1/2)

- 국제기술지원(EMI)이라는 국제 개발자원봉사 단체가 지난해 북한 함경북도 나진에 전력을 사용하지 않는 태양열 온실을 건설, 약 50명의 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감자와 가지, 토마토, 오이, 배추 등 다양한 채소를 연중 재배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일 전했다.
- 이 온실은 전기 사정이 어려운 북한의 현실을 고려해 전력이 필요 없고 겨울에도 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나진의 한 마을에 시범적으로 만들어졌음.
- 가로 8m, 세로 22.6m 크기의 이 온실은 벽돌 대신 값싸고 북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점토와 모래, 자갈로 이뤄진 흙주머니로 세워졌으며, 남향 천장과 벽은 차단하지 않고 햇볕을 흡수하도록 플라스틱 자재로 덮었고 반대편 벽엔 물이 담긴 플라스틱 주머니를 촘촘히 매달아 낮동안 햇볕으로 가열된 물이 밤에 열을 방출함으로써 온실 효과를 내도록 했음. EMI는 지난해 7월 미국인 기술자들이 감독하고 북한 노동자들이 짓는 방식으로 온실을 만들었음.
- 온실 건설에 참여한 미국인 토목기술자 님 웬크(68)씨는 VOA와 인터뷰에서 7월 10일부터 17일까지 나진에 머무는 동안 산책을 위해 호텔 밖을 벗어나는 것이 금지되고, 함께 일하는 북한 노동자와 의사소통을 하려면 노동자의 북한 감독관, 통역관, 수행원을 두루 거쳐야 하는 등 활동에 제약이 많았다고 밝혔다.



● 美전문가들, 북한경제 통계 정확성 분석중(1/1)

-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의 경제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각종 통계자료의 취합과 정확성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
- 방송은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미국, 한국, 중국 등 전 세계에 있는 북한관련 통계 자료를 지난 4월부터 분석하기 시작한 초기 작업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동아태담당 자문관, 미국 국무부에서 선임 경제학자로 근무한 윌리엄 뉴컴 박사, 미 의회조사국의 덕 낸토 박사 등이 이 작업에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 이 작업을 총괄하는 존스 홉킨스대학교의 미카 마루모토 박사는 RFA와 인터뷰에서 1차로 221개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64%인 141개에 북한관련 통계 자료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예상보다 많았다”고 말했다.
- 그는 “그러나 기본 자료로 사용되는 통계 수치가 서로 달라 나라마다 북한 경제를 논의하고,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혼선을 빚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美 “기정착 탈북자가족 망명신청 우선 허용”(1/1)

- 미국 정부는 2009회계연도에 전세계 난민 가운데 최대 8만명에게 망명을 허용할 계획이며 특히 북한, 미얀마, 베트남, 티베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1만9천명의 난민을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 미국은 또 탈북자들을 개인적으로 심사해 망명을 승인하는 것과 별개로 이미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의 가족이 망명을 신청할 경우 ‘가족 재결합’ 지원 차원에서 우선으로 망명을 허용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새해엔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문호가 사실상 더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보건인적자원부가 미 의회 상·하원 법사위원회에 동시 제출한 ‘2009회계연도 망명자 수용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올 회계연도에 전세계에서 최대 8만명의 난민을 수용기로 했다.
- 미국 정부는 지난 2007회계연도엔 전세계에서 4만8천281명, 2008회계연도엔 5만9천명 난민들의 망명을 받아들였다.
- 미국 정부는 다만 탈북자들을 개인적으로 심사해 망명을 허용하는 ‘P-1(Priority 1)그룹’ 이외에 이미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의 가족이 망명을 신청할 경우 가족 재결합 지원 차원에서 우선 망명을 허용하는 ‘P-3(Priority-3)그룹’에도 포함시켰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P-1그룹으로 600명, P-3그룹으로 100명을 수용한다는 계획.



- 탈북자 지원단체에 따르면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라 지난 2006년 5월부터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이 허용되기 시작된 뒤 최근까지 75명의 탈북자가 미국에 재정착했음.

● “힐, 오바마행정부서 대북특사 가능성 커” <RFA>(12/31)

- 새로 출범하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신설될 것으로 알려진 고위 대북 특사에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기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전했다.
- 방송은 ‘차기 국무부 고위직 인선 문제에 밝은 외교 전문가’의 말을 인용, “직업 외교관인 힐 차관보가 국무부를 떠나기보다는 계속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 같다”며 그가 “남을 경우 대북 특사직을 맡을 것이란 소문이 외교계에서 나돌고 있다”고 전했다.
- 그는 “힐 차관보가 특사직을 맡으면 북핵 협상의 기초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북한도 그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기용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 한편 힐러리 내정자와 친한 웬디 셔먼 전 대북정책조정관은 당초 대북 특사설이 있었지만 최근엔 차관급 고위직인 장관 ‘자문관’에 기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들이 전한다고 RFA는 소개했음.

● “美, WFP 통한 식량지원 중단” <RFA>(12/30)

- 미국은 북한이 지난 5월 합의한 ‘식량지원 의정서’를 충실히 이행하기 전까지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 식량 지원은 중단하고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지원은 계속하는 이원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
- 이 방송은 미 국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 미국 정부 대표단이 최근 평양을 방문해 한국어를 구사하는 WFP 요원에게 입국사증(비자)을 내주는 문제를 놓고 북한측과 협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해 당초 WFP에 전담시킬 예정이던 대북 지원식량 6차분의 분배를 미국 NGO들에게 맡겼다고 전했다.
- 이 관리는 “미국 정부는 식량지원 의정서의 합의사항 가운데 북한이 지키지 않고 있는 ‘다른 여러 기술적 문제’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미국과 북한은 지난 5월 체결한 식량지원 의정서에서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요원을 현장에 배치하고, 이들이 24시간 이내에 북한측에 통지할 경우 식량 저장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합의하는 등 종전보다 진전된 식량분배 감시조건을 포함시켰다고 RFA는 전했다.



#### 다. 중·북 관계

##### ● 北김정일-中후진타오 ‘친선의 해’ 다짐(1/1)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1일 새해 축전 교환을 통해 올해 성공적인 ‘북·중친선의 해’를 다짐했음. 중국의 차기 지도자로 알려진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은 지난 6월 북한을 방문해 수교 60주년을 맞는 올해를 ‘북·중 친선의 해’로 기념할 것을 북한과 합의했었음.
- 후 주석은 1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나는 이 기회에 당신과 함께 ‘중조 친선의 해’가 정식 시작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이에 대해 열렬히 축하한다”며 “올해는 중조 두 나라 사이의 외교관계 설정 60돌이 되는 해”라고 밝혔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후 주석은 이어 “중·조친선의 해’는 두 나라 관계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상징”이라며 “중국측은 조선측과 함께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친선을 증진시키고 교류를 촉진하며 협조를 심화시켜 중·조 친선협조 관계의 보다 아름다운 내일을 공동으로 개척해 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조 친선의 해’의 원만한 성공을 축원한다”고 덧붙였다.
- 김정일 위원장도 축전에서 북한과 중국간 “외교관계 설정 60돌이 되는 2009년은 두 나라 인민이 ‘조·중 친선의 해’로 맞기로 한 뜻 깊은 해”라며 “새해를 ‘조·중 친선의 해’로 의의있게 장식함으로써 두 나라 인민은 호상 이해와 친선을 더욱 두텁게 하고 조·중 친선관계 발전 역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장을 아로새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두 나라가 “산과 강이 잇닿아 있는 친선적인 인방이고 조·중 친선은 두 나라로 세대 혁명가들이 물려준 귀중한 공동의 재부”라며 “새해에 두 나라 인민들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내린 전통적인 조·중 친선관계가 쌍방의 노력에 의해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나타냈음.

#### 라. 기타

##### ● 정부, ‘탈북브로커 범죄’ 강력대응키로(1/4)

- 정부가 동남아 일대에서 탈북자들의 제3국행을 지원하는 일부 탈북 브로커들의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음. 정부 당국자는 4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탈북 브로커의 범법행위에 언급, “과거에는 ‘필요악’으로 치부하고 지나쳤던 부분 중에서 ‘악’에 해당하는 부분, 특히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이전에는 탈북자 신병을 인도받으면 문제삼지 않았던 탈북 브로커의 비행 여부도 조사하는 한편 과거의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음.
- 이 당국자는 이와 관련, “탈북 브로커의 범죄행위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이미 착수한 방침도 있고 고려 중인 방침도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다른 기관이나 해당국 정부들과 관계를 고려할 때 구체적인 방침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탈북 브로커의 범법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방침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나는 일부 브로커들의 범법행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 실제 최근 탈북자 실태 조사차 동남아 국가들을 방문하고 돌아온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탈북한 16세 소녀 A양이 한국인 탈북 브로커로부터 성폭행당한 사건을 소개하기도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A양은 한국에 오기 위해 중국을 거쳐 동남아의 한 국가에 어렵게 도착해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브로커 B씨를 만났지만 B씨는 “미국으로 보내주겠다”며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빼돌린 뒤 성폭행했다.
- A양은 B씨가 출장 간 사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중국의 지인에게 자신의 사연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고 중국에서 자신을 돌봐주던 탈북자 브로커가 이 소식을 듣고 해당 국가까지 달려와 A양을 대사관에 인도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B양의 진술과 주변 인물의 증언 등을 검찰 측에 전달한 것을 비롯해 A씨의 처벌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 “태국 입국 탈북자 최근 두달새 3배 증가”<RFA>(1/3)

- 추운 겨울철 들어 몽골같은 북쪽 탈북 경로가 어려워짐에 따라 최근 남방인 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자의 수가 두달에 걸쳐 3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
- 방송은 태국에 갓 진입한 탈북자들이 머물고 있는 ‘메사이 이민국 수용소’에 두달전만 해도 약 20명 남짓의 탈북자들이 있었지만 지난해 11월과 12월 사이 70명 이상으로 늘었다고 이민국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 방송은 “특히 지난 12월말에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태국으로 들어왔다”며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몽골행이 어려워져 대부분의 탈북자가 태국을 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방송은 또 인권단체 관계자와 탈북자들의 말을 인용해 “올해 3월부터 한국 정부가 탈북자에게 적응 교육을 하는 하나원의 체류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심문을 더 강화한다는 발표도 탈북자들이 태국행을 서두르는 큰 이유 중 하나”라며 “탈북자들은 수용생활이나 교육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사회로 진출해 자유로운 활동을 하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 현재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체류하고 있는 방콕 시내의 이민국 본부 수용소에는 200여명의 탈북자가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으며 미얀마 국경에서 가까운 칸차나부리 이민국 수용소에도 10여명의 탈북자가 미국행을 고대하고 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 한편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31일 많은 탈북자가 태국으로 넘어가 수용시설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한국이 이들에게 망명 허가를 내주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탈북자들이 몰려오고 있어 양국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도.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주한美대사 “백범일지 즐겨 읽어”(1/3)

-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가 3일 오후 백범 김 구 선생의 유업을 계승하고 추모사업을 펼치는 효창동 백범기념관을 찾았음. 스티븐스 보스워스 전 대사가 2002년과 2006년 두 차례 백범기념관을 찾은 적은 있지만, 현직 주한 미대사가 방문한 것은 2002년 기념관 개관 이래 처음.
- 스티븐스 대사는 2007년 하버드대가 개최한 ‘김구포럼’에 참석해 한 미관계를 주제로 강연을 하는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김구 선생의 역할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날 방문도 기념관을 직접 찾고 싶다는 그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 대학생 아들 제임스와 함께 기념관을 찾은 그는 김구 선생의 아들인 김 신 관장에게 한국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음. 그는 “나는 여기에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 내가 방문한 이유”라며 “거의 2년을 기다려 왔고, 오늘 이뤄져 기쁘다”고 말했음.
- 그는 ‘김구포럼’ 당시 김구 선생의 가족으로부터 받은 백범일지 영문본을 직접 들고 나와 “잘 읽어봤다”며 특히 ‘나의 소원(My Wish)’ 부분을 거론했음. 김 관장도 백범일지 영문본과 함께 백범일지를 일일이 사진으로 촬영해 책자로 만든 영인본을 스티븐스 대사에게 선물했음.
- 또 김구 선생이 서거한 해인 1949년 1월1일 쓴 ‘한미친선 평등호조(韓美親善 平等互助)’라는 친필 휘호 사본을 액자로 만들어 전달했음. 이 휘호는 김구 선생이 당시 지인이자 주한 미 대사관 문정관이던 고(故) 그레고리 헨더슨에게 써준 것으로, 헨더슨의 부인이 2002년 백범기념관에 기증한 것.
- 스티븐스 대사의 이날 방문은 최근 일각에서 임시정부의 정통성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이뤄져 관심을 끌었으나, 그는 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한국 역사에는 항상 많은 논쟁과 토론이 있었지만 최근의 일을 잘 모른다”며 즉답을 피했음. 그러면서 “한국 역사를 배우는 것은 매일 해야할 과제이지만 나는 아직 깊은 지식이 없다”며 “하지만 백범일지를 매우 즐겨 읽었다”고 말했음. 그는 “나는 2년전 ‘김구포럼’에서의 토론을 즐겼고, 그 경험은 한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고 도전적인 시대를 배우는데 많은 통찰력을 가져다 주었다”고도 했음.



● **라이스 美국무, 한국 방문 추진 무산(1/2)**

- 이달 초 중국방문을 계기로 이뤄질 것으로 보였던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이 취소됐음.
- 외교 소식통은 2일 “라이스 장관이 이달 초 미국-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중국을 방문하는 기회에 한국과 일본 등도 들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만 방문하고 한·일은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음.
- 라이스 장관은 미·중 수교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7~8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행사를 마치는대로 미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 **李대통령-오바마, 4월 런던서 첫 회동할듯(1/2)**

-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차기 대통령이 오는 4월 런던에서 첫 만남을 가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시무식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정상 간 첫 회동과 관련, “4월 초 런던에서 열리는 제2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날 가능성이 큰 것 같다”고 말했음.
- 한국은 G20회의의 공동의장국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양자회동을 넘어 런던에서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유 장관은 “미국측과 협의해봐야 하겠지만 오바마 당선인도 20일 취임하고 나면 양자 외교문제보다는 우선 경제위기 등 국내문제에 신경을 쓸 것 같다”고 말해 2~3월 내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음.
- 그는 “미국 싱크탱크쪽에서 런던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오바마 대통령은 유럽을 들르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동북아를 순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음.

● **韓·美, 핵무기 등 北WMD ‘제거대책’ 마련중(12/29)**

-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외교적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비롯해 대량살상무기(WMD)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군사력을 이용해서라도 이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음. 이를 위해 미군의 한반도 작전을 관장하는 미 태평양군사령부(USPACOM)와 한국군은 북한의 WMD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이미 구성·운용중인 것으로 밝혀졌음.
- 한·미 양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 등 WMD에 맞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의식, 언급을 피해왔음. 일각에선 북한의 WMD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제기했지만 뚜렷한 근거가 뒷받침되지는 않았음. 하지만 한·미 양국이 북한의 WMD를 제거하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실무기구까지 설립했



다는 점은 북한의 WMD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비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

- 특히 최근 미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여러 발언과 자료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대책이 마련되고 있어 주목됨.
- 이 같은 사실은 미 국방부 산하 교육기관인 국방대학(NDU) 부설 WMD연구센터가 지난 5월 발간,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WMD 근절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International Partnerships to Comb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보고서에서 드러났음. 보고서는 미 태평양군사령부가 한국군과 함께 북한의 WMD를 제거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대(對)확산 워킹그룹’을 설치했다(A Counterproliferation Working Group established with South Korea is focused on developing WMD elimination capabilities)고 밝혔음.
- 보고서는 ‘WMD 제거’라는 의미에 대해 “국가 또는 비국가기구의 WMD 프로그램이나 그와 관련된 능력의 위치와 성격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안전을 확보하고 불능화 및 파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음.
- 한·미 양국 국방당국이 북한의 WMD 제거능력을 개발하는 데 본격 나선 것은 6자회담을 비롯한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 등 WMD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보고서는 미 태평양군사령부가 일본 방위청과는 화학·생물·방사능 및 핵(CBRN) 방어 워킹그룹을 설치했으며, 이 그룹의 목적은 WMD 공격시 미·일 양국 간 대비태세와 상호작전능력 및 사후관리작전 능력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음.
- 미·일 양국은 최근에 WMD 공격을 받을 경우에 대비한 제독(除毒) 및 치료대비책, 공동연구 및 개발문제 등에 대해 대처했다고 보고서는 언급, 양국이 북한의 WMD 공격을 염두에 둔 대책을 실행에 옮기고 있음을 뒷받침했음. 또 보고서는 미 태평양군사령부가 동아시아지역에서 WMD에 대비하기 위해 아·태지역 33개 국가들과 함께 ‘다자 간 기획 및 능력향상팀(MPAT)’에도 참가하고 있다고 밝혔음.

#### 나. 한·중 관계

##### ● 베이징서 한국계 대형마트 돌연 영업중단(12/30)

- 중국 베이징의 대형쇼핑센터에 자리잡은 한국계로 알려진 대형 마트가 돌연 영업을 중단하고 문을 닫아 직원과 납품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신경보(新京報)가 30일 보도.
- 신문은 베이징 도심의 스마오텐제(世貿天階) 지하 1층에 자리잡은 한국계 대형 슈퍼마켓 C-마트(중국어:시마이더<喜買得>)가 직원들의 임금과 납품업체들의 물품대금도 정산하지 않은 채 갑자기



영업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직원들에 따르면 이 마트는 지난 18일부터 문을 닫았고 19일부터 맥주공급업체 등 납품업자들이 밀린 물품 대금을 받기 위해 몰려들기 시작했다. 신문은 29일 오후 슈퍼마켓을 찾아갔을 때 점포는 봉쇄돼 있었다면서 직원들은 밀린 두달치 임금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곳에는 지난 24일자로 게시된 “내달 10일에 납품업자들에 대한 밀린 대금을 처리해주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걸려 있었으며 직원 김모씨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남겨져 있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 갑작스런 영업 중단으로 돈을 받지 못하게 된 납품업자 30여명은 관할인 차오양(朝陽)구 신방(信訪)국을 찾아가 문제 해결을 요구했음. 이들은 “최근까지 이상한 징후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문을 닫아 매우 당황스럽다”면서 “결제되지 못한 밀린 물품대금만 해도 200여만위안(3억8천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신문은 이들이 물품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해당 법원에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다. 한·일 관계

##### ● ‘독도 영토제외’ 日 법령 첫 발견(1/3)

- 일본이 패전 후 전후처리 과정에서 독도를 자국 부속도서에서 제외한 법령을 공포한 것으로 확인됐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일본이 1951년 6월 6일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같은 해 2월 13일 공포한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에서 이 같은 내용을 찾아내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에 서면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 ‘총리부령 24호’는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 소유의 일본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제정한 상위법(정령·政令)을 시행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를 제외했음. 러시아와 일본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치시마 열도(현 쿠릴열도)와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섬 등도 부속도서에서 함께 제외돼 있음. 1861년 일본 영토가 된 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관할하다 1968년 6월 일본에 귀속된 오가사와라 제도과 이오(硫黃) 열도도 빠져 있음.
- ‘대장성령 4호’는 ‘구령(舊令)에 의해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3항 규정에 기초한 부속 도서를 정하는 명령’으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 및 치시마 열도와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섬을 부속도서에서 제외했음.
- 연금 지급을 위한 이 특별조치법은 연금 지급과 관련해 호적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일본인을 본방(本邦·혼슈, 홋카이도, 시코쿠, 규슈)과 소관부처에서 정한 부속도서 등에 거주지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는 “일본이 독도가 부속



도서가 아니라는 점을 공식 인정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법령으로 볼 때 일본은 적어도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전까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 柳외교 “日아소총리 내달 11~12일 방한”(12/31)

-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가 다음달 11~12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함.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31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아소 총리는 11일 정오께 한국에 도착해 12일 정오께 출국할 것”이라며 “만찬행사와 한·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재계인사들과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일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관계뿐만 아니라 북한문제를 비롯한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
- 이명박 대통령이 아소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갖는 것은 지난 10월 24일 베이징(北京), 지난 13일 후쿠오카(福岡)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
- 외교소식통은 “양국 정상이 10월 정상회담에서 서틀외교를 복원하기로 합의하고 나서 이 대통령이 이달 초 일본 후쿠오카를 방문했던 것”이라며 “다음달 아소 총리의 방한으로 한·일 정상간 서틀외교가 완전히 복원되는 것”이라고 평가했음.
- 지난 2월 이 대통령 취임 축하차 방한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당시 일본 총리가 복원하기로 합의했던 양국간 서틀외교는 지난 7월 일본의 중등교과서 해설서 독도영유권 명기 강행으로 중단됐었음.

### ●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 개최(12/29)

- 한국과 일본은 29일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제7차 차관급 전략대화를 열고 양자현안과 북핵문제를 비롯한 국제정세 등에 대해 논의. 권종락 외교부 제1차관과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여한 이번 대화에서 양국은 지난 13일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한편 다음달로 예정된 정상회담의 의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음.
- 양 차관은 또 검증의정서 채택을 앞두고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핵 6자회담의 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국제금융위기 대처를 위한 협력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협의했음.
- 양 차관은 아울러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출범 등 국제정세의 변화와 관련, 한·미·일 및 한·중·일 등 협의체제를 강화해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역내 협력 질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음. 그러나 이번 대화에서는 일본 외무성의 ‘독도는 일본땅’ 홍보 확대로 다시 양국관계의 악재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교부 당국자는 “전략대화는 특정현안보다는 주로 중장기적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협의 채널”이라며 “일본 외무성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엄중히 항의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깊이 다루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 한·일 차관 전략대화는 양국이 지역 및 국제 문제들에 대해 보다 큰 틀에서 논의, 협력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2005년 10월 출범한 협의체로, 이번이 7번째.

#### 라. 미·중 관계

##### ● 라이스 미국무 7~8일 중국 방문(1/2)

-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7~8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2일 밝혔다. 중 외교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라이스 국무장관이 7~8일 美·중 수교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 라이스는 지난달 AFP와 인터뷰에서 “연초 미·중 수교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 이 일은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음. 미국과 중국은 지난 1일 외교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았음. 라이스는 중국 방문기간 북핵문제 등 양국의 공통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 마. 기타

##### ● 외교부, 전방위 FTA협상 추진..업무보고(12/31)

- 외교통상부는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내년 1분기 중 타결, 2010년부터 발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음. 외교부는 또 내년에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 규모를 5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경제살리기 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한·미·일 정상회의를 연례화하기로 했음.
- 외교부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방부, 통일부와 공동으로 가진 ‘2009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음. 외교부는 내년에 ▲경제살리기 외교 ▲한·미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3대 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연내 타결을 추진했다 미뤄진 EU와의 FTA협상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 뒤 2010년 1월부터 발효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이미 실질적으로 타결된 인도와의 FTA도 내년내에 발효되도록 노력할 방침. 캐나다 및 걸프협력회의(GCC)와의 FTA 타결, 페루·호주·뉴질랜드·터키·콜롬비아와의 FTA협상 개시 등도 내년에 추진하기로 했음. 외교부는 “한·미 FTA도 가능한 조속한 시기에 미 의회의 비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음.
- 외교부는 또 해외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독일, 아일랜드 등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캐나다 등 기존 체결국들과 인원 확대를 협의해 연 참가자 규모를 현재 3만



여명에서 5만여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음.

-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시장개척단 파견을 올해 7회에서 내년 12회로 확대하고 외국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주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음. 아울러 내년 4월 런던에서 열리는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의장단의 일원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금융안정화포럼(FSF) 조기 가입도 추진하기로 했음.
- 외교부는 또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정상회담은 물론 외교장관회담, 장·차관급 전략 대화 등 다층적 협의채널을 강화하기로 했음.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도 채택할 계획.
-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 유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뒤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가동해 상반기중에 검증의정서 채택과 2단계(핵시설 불능화) 마무리 등의 현안에서 진전을 이루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음. 외교부는 특히 비정기적으로 열려왔던 한·미·일 3국 정상회의의 연례화를 추진하는 한편 3국간 고위급 협의도 활성화하기로 했음.
- 외교부는 이 밖에 ▲일·중·러 등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아시아·유럽 등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자원외교 등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외교적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및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확대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대국민 생활공감 서비스 향상 등 5가지를 지속추진 과제로 보고했음.

#### ● 美 가상통역센터 동해 표기 다시 ‘일본해’로(12/30)

- 최근 한국을 소개하는 지도에 ‘동해(East of Sea)’를 단독으로 명기했던 미국의 정부기관인 가상 통역센터(www.nvtc.gov)가 30일 현재 ‘일본해(Sea of Japan)’ 표기로 되돌아갔음. 이는 18일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가상 통역센터가 미국 정부기관 중에는 처음으로 한국 지도에서 동해를 단독으로 표기했다”고 발표한 지 11일 만임.
- 가상 통역센터는 당시 동해를 ‘일본해’로 적시한 미국 중앙정보국(CIA) 자료의 한국 소개에 나온 지도를 변형시켜 동해로 단독표기해 관심을 끌었음. 한국과 일본 소개 부분에 ‘일본해’를 단독으로 표기한 지도를 사용하는 CIA의 정보는 미국의 정부기관과 교과서 등이 표준으로 삼고 있음. 2003년에 설립된 이 센터는 미국 정부기관으로 외국의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며, CIA, 연방수사국(FBI), 국무부, 해군 등 16곳의 미국 안보기구에 자문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박기태 반크 단장은 “일본의 국제적인 로비로 미국의 가상 통역센터가 태도를 바꿨다”며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약속이었는데 국가 공신력이 로비에 무너지다면 누가 미국을 신뢰하겠느냐”고 안타까워했음.



● **터키총리 에너지보좌관 방한(12/29)**

- 국무총리실은 29일 타너 일디즈 터키 총리 에너지분야 보좌관이 방한해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승수 총리가 이달초 터키를 방문했을 때 양국 총리회담을 통해 경제협력을 증진키로 했다”며 “후속조치의 하나로 터키 총리 에너지 보좌관이 방한했다”고 말했다.
- 일디즈 총리 보좌관은 터키 현직 국회의원이자 에너지장관 물망에 오르는 인사로 방한 기간에 이재훈 지식경제부 2차관과 함께 두산중공업과 한국전력을 시찰하고, 경제협력 방안을 협의한 뒤 31일 출국.

☀ 국제관계연구실 제공